

#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동의과학대



3



2



4

1 동의과학대 전경 2 김영도 동의과학대학교총장 3, 4 실습에 참여한 학생들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영도)는 1972년 '동의지천(東義知天)'의 건학이념으로 부산 중심지에 설립돼, 지난 반세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을 통해 실력과 역량을 두루 갖춘 젊은 인재들을 양성해왔다.

현재 8만6천여 명에 이르는 동문은 사회 전 분야에 활발히 진출해 전문직업인으로서 당당히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새로운 대학 비전인 ACE(Advanced Competency-based Education) 직업교육, ACE(Amalgamative and Creative Expert) 인재양성을 선포한 동의과학대학교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지역 대표 대학으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A등급'(최우수대학)

동의과학대는 주요 대학평가와 여러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대학 교육 품질의 우수성을 입증해왔다. 최근 교육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1차연도 연차평가에서 상위 30% 대학에만 주어지는 'A등급'(

최우수대학)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16억원이 증액된 50억여원의 사업운영비 확보와 함께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지원사업(LiFE), 대학연계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등 주요 국책 사업을 수행하며 안정적인 대학 재정기반을 갖췄다.

이러한 성과는 학생역량 강화로 연결된다. 대학 교육과정 내실화와 교수·학습법의 질 제고 등을 통해 대학 교육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자연스럽게 현장직무 중심으로 학생 역량을 보장한다. 아울러 교육환경 개선에도 많은 투자를 쏟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협력해 '슈나이더 일렉트릭 훈련센터'를 설립한 것이 대표적이다.

## 온라인 강의 플랫폼 '아레테(Arete) 시스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수업 전환에 대응해 올해 말까지 새로운 온라인 교육 환경을 완벽하게 구축할 계

획이다. 최근 수업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해 동영상 강의를 기반으로 한 신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 '아레테(Arete) 시스템'을 도입했다. 아레테는 그리스어로 '최상의 행위 및 능력', '탁월함'이라는 뜻이다.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서버와 스토리지 증설, 강의 녹화 셀프 스튜디오 설치, 원격교육지원센터 신설 등 비대면 수업 인프라를 대폭 확충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수업의 품질 향상과 학생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다.

## 소방안전관리과 신설

올해 교육부로부터 소방안전관리과 신설을 승인받아 2021학년도부터 신입생 70명을 모집한다. 도시화 및 건축물의 고층화, 첨단화로 인한 대규모 복합재난 등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소방안전관리과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의 대처능력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현하는 인성을 갖춘 소방공무원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양성한다.

## 2021학년도 수시모집 2천128명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34개 모집단위로 2천128명(전체 입학정원의 99.3%)을 선발한다. 정원 내 전형(일부 학과 제외)은 학생부 성적 100%(교과 성적 80%, 출결 20%)를 반영한다. 교과 성적은 학년 학기 구분 없이 지정교과(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중 5과목과 선택과목 5과목의 총 10과목(사회체육과는 체육 과목 적용)을 반영한다.

또 부산지역 전문대학으로는 유일하게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사업)'에 선정돼 사회복지요양서비스과, 부동산공유비즈니스과, 양조발효과, 헬스케어매니지먼트과 등 4개 학과로 구성된 미래융합학부를 지난해 신설했다. ❶